KIA 창이냐 SSG 방패냐 … 주말 챔필이 뜨겁다

KIA가 중심타자 나성범(사진)과 반전에 성공한 소크라테스 등을 앞세워 주말 SSG와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노린다. /연합뉴스

KIA, 지난 4월 원정서 스윕패
타격 상승세에 설욕 노려
트레이드 김정빈·김민식 대결 관심

주말 챔피언스필드에서 '창과 방패'의 싸움이 펼쳐진다.

KIA 타이거즈는 27일부터 SSG 랜더스와 안방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눈길 쏠리는 두 번째 대결이다.

KIA는 4월 8일 2022 시즌 첫 원정 상대로 SSG를 만났었다.

주중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싹쓸이 3연승을 장식하면서 기분 좋게 떠났던 원정길이었지만, KIA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 광주로 복귀했었다.

KIA는 SSG와의 첫 경기에서 양현종을 투입해 승리를 노렸지만 폰트와의 팽팽한 초반 싸움 속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0-3패를 기록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놀린의 팔꿈치 부상으로 대체 선발 이민우가 투입됐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KBO 복귀전에 나선 김광현의 기세에 막힌 타선이 8·9회 뒤늦게 반격에 나섰지만 경기는 5-9 패로 끝났다.

3차전에서는 3개의 실책으로 초반 싸움에서 밀리면서 로니가 3이닝 7실점(2자책)의 패전투수가 됐다.

공·수에서 완패한 KIA는 이후 답답한 4월을 보냈고, SSG는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두 팀, 첫 만남 때와는 KIA의 분위기가 다르다.

KIA는 매서워진 타격으로 잇달아 승부를 뒤집으면서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주중 대구 원정에서도 첫 대결에서 스윕패를 당했던 삼성을 상대로 승률을 높이는 등 타선의 힘으로 '뒷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팀 타격 지표 1위에는 KIA의 이름이 눈에 띈다.

25일 경기까지 타율(0.269), 타점(209), 출루율(0.353), 장타율(0.399) 부문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지난 시즌 팀홈런(66개) 최하위였지만 올 시즌 벌써 32개의 홈런을 날리며, 30개의 SSG보다 앞서 있다. 득점권 타율에서는 SSG가 0.279로 앞서 있지만 KIA도 0.261로 3위에 랭크됐다.

마운드 지표에서는 SSG의 이름이 앞에 있다.

SSG는 평균자책점(3.26), 선발평균자책점(3.00), 퀄리티스타트(27개), 홀드(32개), 세이브(19개), WHIP(이닝당 출루 허용률·1.17), 피안타율(0.223) 등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창과 방패'의 싸움과 함께 적이 된 옛 동료들의 승부도 흥미롭다.

두 팀은 지난 9일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KIA가 포수 김민식을 내주고 좌완 김정빈과 내야수 임석진을 받아왔다.

KIA 입장에서는 오랜 고민인 좌완 불펜진의 옵션을 넓히고, 타선의 힘을 더한 트레이드였다. 포수들의 부실한 방망이에 고민하던 SSG 입장에서는 공격력을 더한 '윈윈 트레이드'가 됐다.

이번 주말 김정빈과 김민식이 이적 후 처음 익숙한 동료들을 상대하게 된다. 임석진은 잠실 상단을 때리는 대형 홈런으로 파워를 보여줬고, 지금은 퓨처스리그에서 세밀함을 더하고 있다.

새 유니폼을 입고 적으로 만나게 된 두 선수의 성적에도 관심이 쏠리는 주말 승부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살라 'EPL 공동득점왕' 서울서 한판 승부

벤투호, 6월 14일 이집트와 평가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 공동 1위' 손흥민(토트넘)과 무함마드 살라(리버풀)가 한국에서 단판으로 '리턴 매치'를 펼친다.

벤투호의 6월 평가전 4연전의 마지막 상대가 결국 이집트로 정해졌다. 26일 축구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내달 14일 평가전에서 상대할 팀을 이집트로 확정했다. 축구계 관계자는 "양국 축구협회가 합의했으며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내달 2일 열리는 브라질전 못잖은 빅매치가 '뜨거운 6월'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다.

이집트 대표팀의 최고 스타는 수년간 EPL 최고의 골잡이로 군림해 온 '파라오' 살라흐다.

특히 올시즌에는 손흥민과 이번 시즌 EPL 무대에서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벌인 끝에 시즌 23골로 공동 득점왕 타이틀을 나눠가졌다.

이집트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29위)보다 3계단 낮은 32위에 올라있다.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벤투호의 6월 평가전 4연전 일정과 상대가 모두 정해졌다.

벤투호는 6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브라질, 6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칠레,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한다. 이어 14일 이집트와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이집트전 장소는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손흥민 EPL '올해의 골' 도전

35라운드 레스터시티전 골 후보에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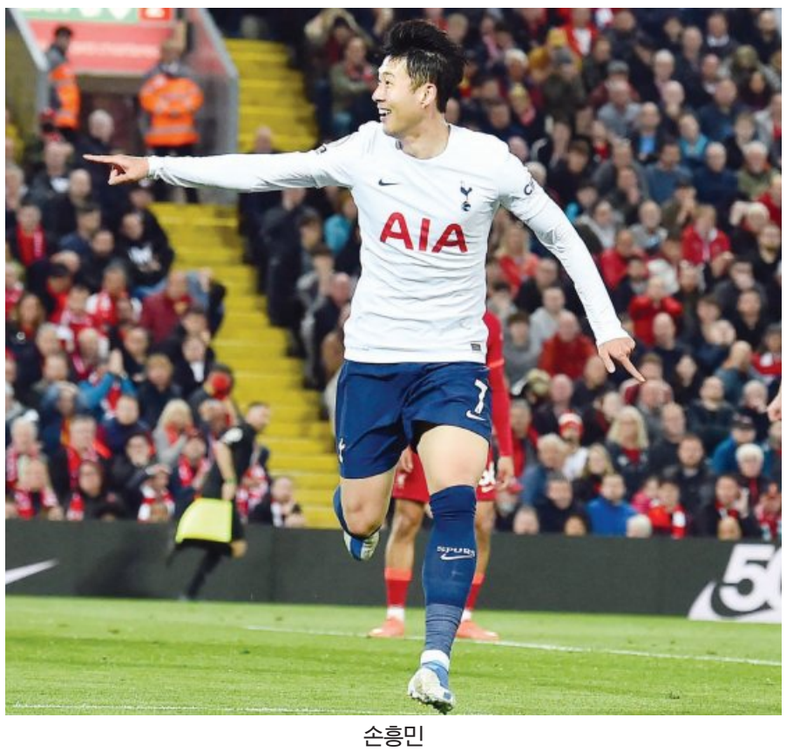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토트넘)이 생애 두 번째 EPL '올해의 골' 수상에 도전한다. 손흥민은 25일(현지시간) EPL 사무국이 공개한 2021-2022시즌 '올해의 골' 후보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일 레스터 시티와 35라운드 홈 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34분에 터뜨린 골이 후보로 올랐다.

당시 손흥민은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전매특허인 왼발 감아차기 슛으로 볼을 골대 왼쪽 상단 구석에 꽂았다. 손흥민이 '올해의 골'을 수상하면 2019-2020시즌에 이어 2번째로 이 상을 받게 된다.

손흥민은 2019-2020시즌에는 번리를 상대로 넣은 이른바 '70m 질주 원더골'로 수상했다. 손흥민은 이 골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국제축구연맹(FIFA) 푸슈카시상을 받기도 했다. EPL 올해의 골 수상자는 전문가와 팬 투표를 합산해 결정한다.

손흥민 외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대니 잉스(애스턴 빌라), 윌프리드 자하(크리스털 팰리스) 등이 후보로 올랐다. /연합뉴스



손흥민

류현진-오타니 선발 맞대결

오늘 토론토-LA에인절스 경기
한·일 투수 자존심 승부

류현진(35·토론토 블루제이스)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일본 선수와 만나면 부진하거나, 불운했다.

일본인 투수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 4경기에서는 3패 평균자책점 5.01로 부진했다. 잘 던진 날 팀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일본인 타자를 상대로는 11타수 5안타 2홈런으로 고전했다.

류현진에게 일본인 투수와 타자를 상대로 동시에 설욕할 기회가 왔다.

류현진은 27일 오전 10시 38분(한국시간)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이날 에인절스 선발은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28)다. 투타 겸업을 하는 오타니는 타석에도 등장해 류현진과 투타 대결을 벌인다.

2021년 '오타니 신드롬'을 일으키며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오타니는 류현진에게 부담스러운 상대다.

하지만, 투수 오타니와 타자 오타니를 모두 제압하면 류현진은 일본인 투수, 일본인 타자와의 악연을 동시에 끊어낼 수 있다.

2013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류현진은 총 4차례 일본인 투수와 선발 맞대결을 펼쳤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소속이던 2013년 6월 20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류현진은 6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패전 투수가 됐다. 당시 양키스 선발 구로다 히로키가 6.2이닝 8피안타 2실점으로 선발승을 챙겼다.

류현진은 2014년 8월 3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두 번째 한일 선발 맞대결을 펼쳤고, 7이닝 9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침묵했다.

류현진은 지난해에는 기쿠치 유세이와 두 차례 선발 맞대결을 펼쳤고, 두 번 모두 패전의 멍에를 썼다.

7월 2일 류현진은 4이닝 7피안타 5실점 4자책으로 부진했고, 기쿠치는 7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선발승을 따냈다.

8월 15일에는 류현진이 6.1이닝 3피안타 4실점, 기쿠치가 4.1이닝 5피안타 3실점으로 모두 고전했고 더 길게 던진 류현진이 패전투수가 됐다.

류현진은 일본인 타자를 상대로도 힘겨운 승부를 했다.

2020년 7월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전에서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치른 쓰쓰고 요시토모에게 5회말 2사 후 투런포를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류현진

류현진이 그해 8월 23일 쓰쓰고를 2타수 무안타로 막아내며 설욕에는 성공했지만 홈런포의 기억이 더 강렬했다.

류현진은 2013년 5월 23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서 아오키와 맞붙어 4타수 2안타를 허용했고, 그해 6월 20일에는 뉴욕 양키스 스즈키 이치로와 맞붙어 홈런 한 개 포함 3타수 2안타로 판정패했다.

류현진의 일본인 타자 상대 성적은 11타수 5안타(타율 0.455), 2홈런이다.

한편 오타니는 25일까지 올 시즌 투수로 7경기 3승 2패 평균자책점 2.82, 타자로 43경기 타율 0.256, 9홈런, 28타점을 기록 중이다.

MVP에 오른 지난해에는 투수로 9승 2패 평균자책점 3.18·타자로 타율 0.257, 46홈런, 100타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